

두 도시 이야기: 강릉과 다카라즈카

-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와 〈강릉의 감사패〉를 둘러싼 공공외교 사례 분석

조정희*

국문요약

2020년 3월 26일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에 조선인 추도비가 건립되었다. 이 추도비에는 1914년 3월 고베수도공사 중에 사고로 사망한 김병순(金炳順)씨를 포함한 다섯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다카라즈카의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은 지난 1백 년 동안 이 조선인 순난자들을 제사지내 왔다. 그들의 희생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마침내 다카라즈카 시정부의 협력 아래 추도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이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한국식 공공외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파악하면서, 이와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에서 인류애와 인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가치 추구와 공공외교의 세 행위자(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추도비, 공공외교, 협력, 강릉, 다카라즈카

I. 들어가면서

1914년 3월 14일, 강릉 출신의 김병순(金炳順)씨가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

* 독립연구가, jc7202@gmail.com

(寶塚) 니시타니(西谷) 지역에서 진행되던 고베수도공사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수도관이 통과하는 터널 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낙반 사고였다. 이듬해인 1915년에도 1월 21일 남익삼(南益三)씨, 3월 24일 장장수(張長守)씨가 사망했다. 세 사람의 유해는 니시타니 타마세 마을 공동묘지에 매장됐고 위패는 만푸쿠지(滿福寺)에 모셔졌다. 니시타니 지역 타마세(玉瀬) 마을 부녀회는 매년 8월 24일 만푸쿠지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세 조선인 순난자¹⁾를 위해 무연고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1929년 3월 26일, 같은 지역에서 국유철도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 개수 공사 중에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로 두 명의 조선인 노동자, 윤길문(尹吉文)씨와 오이근(吳伊根)씨가 사망했다. 이들의 시신은 화장되어 묘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잊혀졌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2020년 3월 26일, 50여 명의 일본인과 재일조선인들이 다카라즈카 기리하타(切畑) 소재 나가오산(長尾山) 기슭의 사쿠라공원(桜の園) 입구 신수이(親水)광장에 모였다. 수도공사와 철도공사 중에 사망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다섯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²⁾를 세우는 자리였다.

다시 2년이 지난 2022년 3월 26일 다카라즈카를 방문한 도쿄 소재 강원도 대표부의 강병직 본부장은 강원도와 강릉시를 대표해서 여덟 명의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김한근 강릉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사람은 일본인 여섯 명과 재일동포 두 명이였다.³⁾

1) 일본에서는 공사 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순난자(殉難者)’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는 일본식의 ‘순난자’와 한국식의 ‘희생자’라는 말을 같은 말로 간주하여 맥락에 따라 섞어 사용했다.

2) 이 추도비 전면에는 고향을 그리는 조선인 희생자들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월조남지(越鳥南枝)>라는 글씨가 한자로 새겨졌으나, 현지에서는 <월조남지 추도비>라는 이름보다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추도비 건립자의 한 사람인 콘도 도미오(近藤富男, 1950-2022)씨도 생전에 가졌던 문자 인터뷰에서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를 공식 명칭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현지 관행과 콘도 도미오씨의 추천에 따라 이 추도비를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로 표기하기로 한다.

3) 전직 교사이자 시민활동가 콘도 도미오(近藤富男), 조선사 연구자 히다 유이치(飛田雄一)와 호리우치 미노루(堀内稔), 조각가 타마노 세이조(玉野勢三), 만푸쿠지의 주지 아다치 타이쿄(足立泰教)와 아다치 치쿄(足立智教) 부처, 그리고 재일조선인사

〈자료 1〉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2020)〉의 전면과 후면



한국과 일본의 언론은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식을 보도하면서 현해탄 양쪽의 두 도시가 이어가는 휴머니즘을 소개했다. 일본 근대화를 위해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1백년 넘게 제사하고 추도비까지 세운 다카라즈카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강릉의 이야기는 두 도시의 지방 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들에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 글은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가 건립되고 그 희생자 중 한 사람인 김병순씨가 강릉 출신인 것이 밝혀진 이후, 강릉과 다카라즈카의 시민들과 시정부 사이에서 진행된 일들을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그 성격을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파악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향후 공공외교적 교류와 협력 활동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공외교의 개념과 용어가 한국에 도입된 배경과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의 공공외교 개념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공공외교의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포함한 세 주체 사이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다.

이어서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 과정과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

연구자 정홍영(鄭鴻永)과 사업가 김례곤(金禮坤)이 그들이다.

과정과 그 결과를 4단계로 나누어 서술한다. 특히 한국의 공공외교 개념이 상정한 세 행위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유형적으로 요약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유사한 공공외교 활동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과 향후 강조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공공외교의 세 주체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법(법률 제13951호)〉 제2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가 제시한 공공외교의 정의와 목표에 따르면 강릉시가 〈다카라즈카 조 선인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과정은 한일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두 도시의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협력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인식과 관습을 뛰어넘어 양국민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공공외교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김화정(2020, 20)에 따르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가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이 시기에 법제화, 제도화된 공공외교는 미국 정부의 외교 노력이 상대국의 국민을 향했다는 면에서 ‘공공’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Cowan and Cull 2007, 14-16). 그러나 이 시기의 미국 공공외교는 민간 부문을 활용하기는 했으나 외교의 주체는 여전히 미국 정부였고, 내용도 미국의 가치 선전과 미국 제도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공공외교’를 이전 시기의 ‘체제 선전’이나 ‘국가 홍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며, 실제로 미국 공공외교는 기존의 정부 간 외교의 틀 안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김화정 2020, 21).

미국 공공외교는 2001년 9/11 사태와 함께 변화를 맞았다. 정부 외교와 공공외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세계 시민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고, 결국 미국 영토 안에서 대량살상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인터넷과 쌍방향 소통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공공외교의 방식이 ‘독백’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Cowan and Arsenault 2007, 20-49).

공공외교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이 즈음이었다. 김대중 정부 아래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고속 인터넷 연결망이 확대되었던 것이 그 배경이었다. 각급 지방정부들은 행정의 민주화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갔는데, 이에 더해 외국의 지방정부들과의 관계 수립에도 열성을 보였다. 김형수(2020, 7)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는 96건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1991-2000년에는 4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2001-2010년에는 676건으로 늘어나 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 지방정부가 외국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의 수도 2019년 12월 현재 82개국의 176개 도시로 늘어났다(김형수 2020, 8).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정부’의 외교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식 개념과 차이가 없으나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가 외교의 주체로 떠오른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 공공외교는 2010년대에 민간부문을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시키면서 더욱 발전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2010년 공공외교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하면서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출범시켰고, 2011년에는 초대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했는가 하면, 2012년에는 공공외교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등, 공공외교를 정부외교의 주요한 부문으로 추진해 나갔다(외교부 2020, 3).

마침내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이 제정, 발효되었는데, 동법 제2조에서는 공공외교의 목표를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이 같은 활동의 주체로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민간부문(=시민단체/개인)’을 명시하면서, 이 세 부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외교법〉을 근거로 2017년에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외교부의 주도 아래 수립되었고, 2018년에는 〈국민외교센터〉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미국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미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민간부문을 활용해 타국 시민들에게 미국 정책을 선전하는 데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도입된 후로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공공외교의 주체이자 당사자로 확실히 정착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를 보면 민간부문이 외교 활동에 참여한 것은 최근의 현상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와 협력하거나, 혹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외국의 지방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였던 예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안용복의 독도 외교와 최근 방탄소년단

(BTS)의 유엔 연설과 공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Ⅲ. 방탄소년단(BTS)과 안용복

2000년대 이후 도입되어 2010년대에 발전을 이룬 한국의 공공외교는 지방 정부와 민간부문을 주체로 인정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점에서 미국 초기의 공공외교와 차이가 있다. 자매결연 도시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의 지표(김형수 2017, 41-53)라면, 방탄소년단의 유엔총회 연설은 민간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어 왔다(김상배 2019, 20-21).

방탄소년단은 2018년 9월 24일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소수자의 정체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설은 방탄소년단의 활동 목적과 가치의 선언이기도 했지만, 공공외교의 측면에서도 케이팝의 기반으로서의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강명석 2019, 140-141).

그런데 민간부문이 공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벌였던 기록상의 효시는 조선 숙종 시기(1674-1720) 동래 어부 안용복의 독도 수호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해 지방정부인 오키섬(隱岐島)과 요나고(米子), 토토리번(鳥取藩)과 나카사키(長崎) 및 쓰시마번(對馬藩)과 접촉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고, 마침내 일본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고 명시된 서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 어민의 “다케시마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렸고, 이후 철종(재위 1849-1864년) 시기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신용하 2006; 박병섭 2007; 권정 2011; 김양수 1997; 김현민 2019a, 2019b).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과 울릉도 어장 문제로 충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지방정부(토토리번과 쓰시마번) 및 중앙정부(에도 막부)와 교섭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공식 외교 문서를 확보했다. 민간인으로서 전형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한 것이다.

일본과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분쟁이 마무리된 후 조선 정부는 안용복을

처벌하고 유배를 보냈다. 죄목은 안용복이 조선 정부의 공도(空島) 정책을 위반했고, 조정의 허락 없이 영토를 이탈했으며, 두 번째 도일 때에 울릉우 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는 관직을 사칭했다는 혐의였다. 이는 모두 중죄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시 남구만 등이 안용복의 영토 수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만류하여 형벌이 유배로 경감됐다.

이익은 성호사설 제3권에서 “안용복은 영웅과 짝이 될 만한 사람이다. 미천한 군졸로서 만 번 죽을 각오로 국가를 위해 강적과 겨뤘던 간사한 마음을 꺾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하고 한 고을의 땅을 회복했으니, 걸출하고 의연한 자가 아니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포상하기는커녕 사형시키려다 귀양을 보냈다. (조정이 안용복의) 기상을 꺾어버리기에 여념이 없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라고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안용복에 대한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그의 유배가 해제되었다거나 처벌이 번복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은 일본 제국에게 망할 때까지 안용복을 복권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용복의 활약으로 (1) 조선정부는 공도(空島) 정책을 포기하고, 수년마다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는 수토(搜土) 제도를 확립했고, (2) 그때까지 존재 여부도 몰랐던 독도의 존재를 확인해 영토화했을 뿐 아니라, (3) 일본 에도 막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여, (4) 쓰시마 번주의 울릉도와 독도 침탈 야욕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IV.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와 <강릉시의 감사패>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가 세워진 것은 2020년 3월 26일이지만, 이 추도비의 주인공인 5인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은 1914~15년과 1929년이었다. 즉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는 희생자들의 사후 약 1백년이 지나고 나서야 건립된 것인데, 이는 그들의 죽음이 오랫동안 잊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 1980년대부터 이들의 희생이 일본 향토사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발굴, 조사되어 기록된 과정, (2) 2000년대에 다카라즈카 지역 사회에서 추도비 건립 운동이 일어나 결실을 맺게 된 과정, (3) 추도비 건립자들의 의뢰로 한국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추도비 희생자들의 한국 내 연고를 조사했던 과정과 결과, 그리고 (4) 2022년 3월 강릉시가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게 된 과정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가극의 거리의 또 다른 역사: 다카라즈카와 조선인

1914년 3월 14일, 강릉 출신의 김병순(金炳順)씨가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寶塚) 니시타니(西谷) 지역에서 진행되던 고베수도 터널 공사 중 낙반 사고로 사망했다. 이듬해인 1915년 1월 21일에는 남익삼(南益三)씨가, 3월 24일에는 장장수(張長守)씨가 비슷한 사고로 사망했고(정홍영鄭鴻永 1997, 28-47), 이들의 유해는 니시타니촌의 타마세 마을 공동묘지⁴⁾에 매장됐으며 위패는 인근 불교사원 만푸쿠지에 안치됐다. 니시타니 부녀회는 1914년부터 매년 8월 24일 만푸쿠지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세 조선인을 위한 무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⁵⁾

1929년 3월 26일, 같은 지역에서 진행된 국철 후쿠치야마선(福知山線)의 제6호 터널 개수 공사 중에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로 두 명의 조선인 노동자, 윤길문(尹吉文)씨와 오이근(吳伊根)씨가 사망했다. 이들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묘지가 마련되지 않은 채 잊혀졌다(정홍영鄭鴻永 1997, 8-27).

이들 조선인 희생자들의 사망 시기가 1910년대 중반과 1920년대 말인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의 궁핍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던 노동 이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문헌 조사에도 불구하고

4) 만푸쿠지의 아다치 치쿄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타마세 마을 공동묘지는 사람이 묻히는 묘역과 우마(牛馬) 등 가축이 묻히는 묘역이 인접하면서도 구별되어 있었는데, 순한 조선인들은 연고가 없어 동물묘역 쪽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1백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타마세 공동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유해나마 발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5) 강릉시의 감사패가 전달된 후 만푸쿠지의 아다치 타이코 스님은 2022년 6월, 3인의 조선인 노동자 위패를 모신 경내 지역에 참배탑을 세우고 이를 <삼계만령공양탑(三界萬靈供養塔)>이라 명명하기로 했다고 연락해 왔다. 또 향후 타마세 부녀회, 효고현의 인권 및 사회단체, 그리고 재일조선인 공동체와 협력하여 <삼계만령공양탑> 주변에 무궁화와 진달래를 심어 조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고 이들의 고용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어떤 경로로 도일하여 다카라즈카 지역에 정착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이들은 조선에서 일본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도일했거나, 개인적으로 도향한 끝에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흘러들어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들의 사망 사실을 재발견한 것은 다카라즈카의 향토 역사가 정홍영(鄭鴻永, 1929-2000)⁶⁾과 시립중학교 일본어 교사 콘도 도미오(近藤富男, 1950-2022)⁷⁾였다.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는 1983년 가을 다카라즈카 시립중학교 교직원 연수회에서 처음 만나 효고현과 오사카부의 재일 조선인 역사를 함께 조사, 연구하기 시작했다(정홍영 1997, 16-17).⁸⁾

두 사람이 조선인 추도비의 희생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1985년 봄이었다. 정홍영 선생은 조선인의 효고현 정착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친분을 맺었던 다카라즈카 시사(市史) 편찬실의 편집담당 주사 와카바야시 야스시(若林泰)씨로부터 3장의 매장인허증 사본을 입수했는데, 이는 니시타니(西谷) 촌사무소가 김병순, 남익삼, 장장수씨의 매장을 위해 발행한 것이었다(정홍영鄭鴻永 1997, 16-17).

이를 근거로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는 조사를 계속해 이들을 사망케 했던 공사가 고베수도건설 제1차 확장공사(1911-1921년)였으며, 희생자들이 거주

6) 요시나가 마사요시(1989, 21)와 히다 유이치(2000, 25)에 따르면, 정홍영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5세에 가족과 함께 도일, 다카라즈카 지역에 정착했고, 간사이(關西) 사립명문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한 후 조선인연합회의 다카라즈카 지부장으로 근무했다. 1976년 조선인연합회의 전임에서 사직한 후, 한편으로는 불고기 전문식당 <홍매원(紅梅苑)>을 경영하면서 효고현과 오사카부 지역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조사, 연구하기 시작했다.

7) 히다 유이치(2022, 6)에 따르면 콘도 도미오씨는 오카야마(岡山) 출신으로 간사이 국립명문 고베(神戸)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후, 다카라즈카 시립중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재직했다. 고베대학 농학부의 야스시 교수의 영향 아래 유기농 축산업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졌고, 일본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효고조선관계연구회>와 <고베학생청년센터>, <무쿠게회>와 <외국시민문화교류협회> 등의 시민/연구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8) 이들의 발굴이 미디어에 널리 소개된 것으로 고베의 니시노미야 소재 코요엔 지하 병커 벽에서 발견된 “조선국 독립(朝鮮國獨立)”과 “푸른 봄(綠の春)”이라고 쓴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벽서가 있다. 그동안 이 벽서의 발견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왔으나, 히다 유이치(2000, 25)와 당시 발굴 탐사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다카라즈카 거주 신도 도시유키(眞銅敏之)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벽서의 발굴자는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가 주도한 탐사대였음이 분명하다.

〈자료 2〉 정홍영의 재일조선인사 연구서 〈가극의 거리의 또 다른
역사: 다카라즈카와 조선인(1997)〉



하던 합숙소가 “카와베(川辺)군 니시타니(西谷)촌의 타마세(玉瀬)촌 이즈리하(イズリハ) 1-45번지”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정홍영은 또 1993년 3월 25일, 조선인 관련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중이던 〈무쿠게회〉의 연구자 호리우치 미노루(堀内稔)로부터 1929년 다이나마이트 폭발사고로 조선인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 기사 사본을 입수했다. 1929년 3월 28일자 〈고베신문〉과 〈고베유신일보〉 기사였다. 이튿날 정홍영은 콘도 도미오와 함께 타케다오(武田尾)를 답사해 사고 발생 지역이 “나가오산 자락의 신6호 터널의 입구에서 약 50미터 전방 왼쪽에 작은 공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이 사고 발생 64년째의 바로 그날(3월 26일)임과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1910년 3월 26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은 희생자들에 대한 첫 제사를 드렸다. 미처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만의 제사”였으나, 이 제사는 이후 두 사람의 주도로 매년 계속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다카라즈카 지역의 일본인들과 재일동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고베 수도공사와 후쿠치야마선 철도공사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5인에 대한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의 조사결과는 정홍영의 저서 『가극의 도시의 또 다른 역사: 다카라즈카와 조선인』(1997)에 수록됐고, 훗날 〈다카라즈카 조선

인 추도비)를 건립하는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2.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은 <무쿠게회>의 기관지 <무쿠게통신(300호, 2020년 5월 31일자)>에 기고된 정홍영씨 회고문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콘도 도미오(2020, 9)는 “완성된 비석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홍영 선생의 묘에 가서 비석이 완성된 것을 보고했다”면서, “정홍영 선생은 이 사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도비 건립은 정홍영 선생의 생전인 2000년 이전부터 구상되었고,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가 ‘여러 번’ 의논해 왔던 바였음을 알 수 있다.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이 추도비는 <추도비 건립 모임>과 <다카라즈카시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이하 교류협회), 그리고 <목련회>의 세 단체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계향(2019, 146)에 따르면 이중 가장 먼저 생긴 것은 <교류협회>(1996)이다. 1990년대 초 김예곤은 자신의 석재회사에 근무하는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겪는 언어 및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협회>를 창립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교류협회>는 재일 조선인을 위한 활동을 늘려갔다. 다카라즈카 거주 외국인의 상당 부분이 재일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예곤은 사업경영 과정에서 형성한 교우 관계를 이용해 <교류협회>에 정계, 재계, 문화계의 인사들을 다수 영입했는데, 이들은 지식인 계층이 거의 없었던 다카라즈카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권익 옹호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교류협회>가 추도비 건립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0년경이었다. 정홍영씨가 2000년 1월 타계한 후에도 콘도 도미오씨는 희생자들의 제사를 계속하면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갔다. 추모 제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류협회>가 동참했고, 2013년에는 콘도 도미오씨도 <교류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5년 5월에는 <고베수도건설공사 및 구국도 후쿠치야마선개수공사 중의 사망자 추도비를 건립하는 모임>(이하 <추도비 건립모임>)이 발족되었는데, 콘도 도미오씨가 회장에 취임했다.

정계향(2019, 460)에 따르면 오사카를 활동 무대로 하는 <목련회>도 “추

도비 건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였다. “〈목련회〉의 회장은 콘도 도미오씨, 공동회장은 김예곤씨”이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두 사람의 대표를 포함한 23인으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류협회〉의 회원”이기도 했다. 즉,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의 건립은 콘도 도미오-김예곤의 주도 아래 다카라즈카의 〈교류협회〉와 오사카의 〈목련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졌다.

추도비 건립에 협력한 것이 이들 뿐은 아니었다. 효고현과 오사카부의 많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건립 운동에 나섰다. 그중에는 추도비 건립을 위한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의논된 내용을 홍보하는데 앞장선 분들도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추도비가 지금의 모양을 갖추도록 애쓴 분들도 있었다.

콘도 도미오씨에 따르면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전제 아래 추도비의 조각과 장식, 그리고 설치에 이르기까지 실제 작업을 직접 담당한 재일조선인도 있었다. 그밖에도 〈교류협회〉나 〈목련회〉, 〈추도비 건립모임〉 등의 회원이 아닌 많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들이 추도비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했다.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는 세 주도 단체뿐 아니라 추도비 건립 취지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건립되었다.

3. 희생자들의 연고 조사

필자가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9년 11월이었다. 당시 필자는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일본 공연을 취재 중이었고,⁹⁾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후속 취재를 하던 중 효고현 이타미 거주 재일조선인 사진가 정세화 선생을 통해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가 설립된다는 말을 처음 전해 들었다.

2020년 5월, 추도비가 완성된 후에 〈무쿠게통신〉에 기고한 콘도 도미오(2020, 9)의 글을 읽으면서 필자는 이 추도비가 예사로운 추도비가 아님을 알았다.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이 힘을 합쳐 일본 근대화를 위해 희생된 조선

9) 2018년 여름부터 약 1년 반에 걸쳐 홋카이도 나요로(名寄)에서 오키나와 나하(那覇)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의 42개 도시를 방문해 최승희 선생의 공연이 있었던 흔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인 노동자들을 발굴, 기록, 제사한 끝에 세워진 추도비였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약 170개의 조선인 추도비가 세워져 있지만(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2019, 5).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세워진 추도비를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해 5월말 콘도 도미오씨는 정세화씨를 통해 “추도비에 기록된 순난자들의 한국 내 연고를 찾아 달라”고 부탁해 왔다. 콘도 도미오씨 자신이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답사했으나 희생자들의 한국 연고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도비에 얹힌 자세한 사연을 알게 된 필자는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섯 명의 희생자 중 적어도 네 명의 한국 내 연고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사망한 김병순씨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으로 추정되었다. 그의 매장 인허증에 나타난 본적 주소가 강원도 강릉으로 판독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소가 불완전했으므로 다른 문헌으로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윤길문, 오이근씨의 고향은 경상남도 고성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29년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를 보도한 현지 신문들을 발굴해 검토한 결과였다. <아사히신문>(1929a, 조간11면; 1929b, 조간4면)의 보도에는 이들의 주소가 보도되지 않았지만, <고베신문>(1929, 10면)은 두 사람을 “조선 경상남도 출생”이라고 보도했고, <고베유신일보(1929)>는 더 구체적으로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출신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장수씨의 한국 연고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신문 기록이나 매장 인허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일본 내 고용 기록도 끝내 발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남익삼씨의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역시 그의 매장 인허증에 나타난 주소가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간신히 밝혀낼 수 있었다.

문헌 조사를 통해 희생자 다섯 명 중 네 명의 한국 내 연고지가 추정되었지만, 이 연고지들은 현지의 기록이나 증언으로 교차검증을 해야 했으므로 바로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남 고성-통영 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네 차례 방문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이나 호적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신문>의 한창식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시청과 군청의 공개 가능한 모든 공공

기록을 열람해 나갔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병행된 강릉 조사에서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타났다. 11월 중순의 1차 조사에서는 강릉시청을 접촉했으나 공적 자료 협력이 불가능함을 재확인했다. 2차 조사에서는 강릉의 사회활동가들을 통해 협력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3차 조사에서는 탐사의 방향을 김병순씨의 족보를 발굴하는 쪽으로 조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마침내 4차 조사에서 경주김씨 수은공파 강릉지회의 지회장 김자정씨와 지원 김철욱씨의 도움으로 김병순씨의 족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족보에서 “일본에 거주(在日本)”라고 서술된 김병순씨의 이름을 찾아냈다.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이 김병순씨가 다카라즈카에서 사망한 그 김병순임을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병순씨의 한국 내 연고를 확인하자마자 이를 다카라즈카의 조선인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모두 놀라며 기뻐했고, 유족이나 친척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나 김병순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었고, 족보 기록으로 사촌과 6촌 등의 친척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현주소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종친회에서도 그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오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강릉 조사는 김병순씨의 연고지는 찾았지만 연고자를 찾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

4. 강릉시청의 감사패 증정

김병순씨의 연고지가 확인되고 나서도 필자는 다른 네 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백여 년의 제사와 추도비 건립만도 매우 고마운 일인데, 김병순씨의 연고지가 밝혀지자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사를 함께 해 준 동료들과 함께 김병순씨의 고향, 강릉시의 대표자가 추도비 건립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해 달라는 청원을 내기로 했다.

청원자는 필자를 포함해 모두 열 명이였다. 서울에서는 필자와 함께 추도비 조사를 위해 강릉을 방문했던 안해룡(사진작가, 다큐감독), 정철훈(김상진 기념사업회 이사), 일본에서 조사를 지원해 준 정세화(사진가, 정홍영씨의 장남), 다이코꾸 스미에(大黒澄枝, 전직 교사), 강릉에서는 직접 조사에 참여해 준 강승호(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홍진선(사단법인 김성수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선기(사회적 기업 <네트피아> 대표, 강릉원주대 강사), 김자정

(경주 김씨 수은공파 강릉지회장), 김철옥(경주김씨 수은공파 강릉지회원) 등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문에서는 일제강점기 다섯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다카라즈카에서 사고사를 당한 시점부터 추도비가 완성된 시기까지의 1백 년 동안의 사정을 간략히 서술했고, 추도비 건립에 앞장선 여덟 명의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을 선별해 감사패 증정을 추천했다. 청원문에는 여덟 명의 약력과 추도비 건립에 노력한 내용을 기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김하정 2022, 8-9).¹⁰⁾

필자가 작성한 청원문은 유선기씨에 의해 강릉시의회의 정광민 의원에게 전달됐고, 정광민 의원은 이를 다시 시청 유관 부서에 전달했다. 강릉시청에서는 민원과의 이준하 계장과 총무과의 박종시 계장을 실무자로 배정해 청원사항을 검토했다. 이준하 계장은 김병순씨의 호적 확인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신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족 외 신청자의 호적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총무과의 박종시 계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끝에 강릉시의 포상조례¹¹⁾에 따라 감사장을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로 강릉시의 공무원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 외교부 소속 고배충영사관과 지방정부인 도교소재 강원도대표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종시 계장은 청원문 사본을 이 두 부서에 송부했다.

한편 강릉시청이 청원을 접수하고 그 내용의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내 일본에도 전달되었고, 특히 정세화, 다이코꾸 스미에씨는 조사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작업에 협력할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조사자들이 모든 대상자들을 일일이 탐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담회를 조직해서 모든 조사가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10) 청원문의 개략적 내용과 감사패 증정 추천자 8인의 약력과 추도비 건립에의 기여사항은 강릉에서 발행되는 잡지 <강릉플러스>(2022년 3월호)에 수록되었다.

11) 강릉시(2022, 1995)에 따르면 강릉시는 “강릉시장 명의(제3조)”로 된 감사장을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제6조)”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 공무원 등 직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가 그 대상이 되며,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베총영사관과 강원도 대표부는 협의를 통해 이 청원을 강원도 대표부가 추진하도록 협의했고, 그 결과 도쿄 소재 강원도 대표부의 강병직 본부장이 청원내용 확인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강병직 본부장은 문미현 부장을 통역자로 대동하고 2022년 1월 다카라즈카를 방문, 청원내용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사전 협의를 통해 심사 대상자 여덟 명은 조선인 순난자들을 위한 제사가 1백년 이상 드러졌던 타마세의 불교 사찰 만푸쿠지에 모였고, 확인 조사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원래의 청원문에서 필자는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감사패 증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그 증정 시기를 조속히 정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상자 여덟 명 중 한 명이자 추도비 건립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해 온 콘도 도미오씨가 지병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 강병직 본부장과 문미현 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병상의 콘도 도미오 선생을 따로 방문해 문병 겸 조사 작업을 마쳤다.

다카라즈카 1차 방문 후에 강병직 본부장은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 보낸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청원내용이 사실이며, 감사패 증정을 적극 권한다는 의견을 송부했다. 이 조사결과를 접수한 강릉시청에서는 신속하게 시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을 결정했고, 증정 날짜를 고베철도공사 사고일인 3월 26일로

〈자료 3〉 콘도 도미오씨에게 증정된 강릉시장 명의의 감사패(2022)



결정했다.

해가 바뀌면서 감사패 청원 사안의 담당자가 박종시 계장에서 박인순 계장으로 바뀌었지만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졌으므로, 감사패 증정 사안에 지장은 전혀 없었다. 박인순 계장은 감사패의 문구를 결정하는 데에 필자의 의견을 구했는데, 필자는 다시 일본의 동료들과 협의해서 감사패 문구를 박인순 계장께 추천했다. 이 문구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이내 감사패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콘도 도미오씨의 용태가 1월말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물론 청원자들과 실무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감사패의 공식 전달 날짜까지는 아직도 두 달여가 남았으나 콘도 도미오씨가 그때까지 생존해 계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이에 강릉 시청의 박인순 계장은 콘도 도미오 선생의 감사패를 우선적으로 제작, 조속히 발송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연락해 왔다. 그러나 그나마 기다려 주시지 못할 것 같다는 가족들의 말을 전해 받은 필자는 박인순 계장께 막 완성된 감사패를 사진으로 촬영해 문자로 첨부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받자마자 즉시 이를 강병직 본부장과 정세화 선생에게 보냈다. 정세화 선생은 이를 가족들에게 보냈다.

혼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콘도 선생은 잠시 의식이 돌아온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강릉시장 명의의 감사패 사진을 보실 수 있었다고 하며, 그날 밤에 운명하셨다. 2월 10일 밤이었다.

콘도 선생의 장례식은 2월 12일에 열렸고, 조출한 장례식을 원했던 고인의 뜻대로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장례식이 자택에서 이뤄졌다. 가족들의 양해를 얻은 강병직 본부장과 문미현 부장은 재차 다카라즈카를 방문해 장례식에 참석,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식 참석한 추도비 설립자들과 함께 증정식 절차를 논의할 수 있었다.

감사패 증정식은 예정대로 2022년 3월 26일 다카라즈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원래는 다카라즈카 지역소의 청사를 사용하고자 행사 신청을 했으나 주말이라는 이유로 청사 공간 사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감사패 증정식에는 일본 중앙과 지역 언론사들이 참가해 취재를 벌였다. 일본의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포상이 이뤄진 것인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마이니치>(2022년 4월 20일자, 호고판, 24면)와 <아

사히>(2022년 4월 20일자, 효고판, 24면) 등의 전국지들이 이를 기사화했고, <고베신문>과 <고베TV> 등 지역 신문과 방송이 보도했다고 전해 들었다. 또 <통일일보> 등의 지역 조선어 신문도 이를 크게 기사화했다.

증정식이 모두 끝난 후, 청원자 10인은 이번 사안을 위해 감사패 증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적극 추진해 준 강릉시청과 강원도청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해 준 강원도와 강릉시의 공무원 5인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치하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 5인의 공무원은 강릉시청의 이종하, 박종시, 박인순 계장 등 3인과 강원도본부의 강병직 본부장과 문미현 부장 등 2인이었다.

V. 시민사회: 일본인과 재일동포, 그리고 강릉시민

다카라즈카 추도비 건립과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이 이뤄지는 데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주요 요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협력해야 하는 외교문제이므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의 도움이나 추진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도비와 감사패는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작되어 진행되고,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의 실증적 토대가 되었던 조사 연구가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 등의 지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졌고, 이들의 연구는 공공부문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수행되었다.

2015년 <추도비 건립회>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 크 회원들은 주로 오사카의 <목련회>와 다카라즈카의 <외국인시민문화교류협회(=이하, 교류협회)>였는데, 두 단체 모두 시민단체였다. 일부 시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으나 이들이 공적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5년 동안 전개된 홍보와 모금도 <추도비 건립회>가 중심이 된 민간부문이었고, 홍보와 모금의 대상도 진보적 시민그룹과 재일동포들이었다. 추도비 제작에 필요한 석재도 김예곤씨의 기증에 의한 것이었고, 추도비의 제작도 <목련회> 회원인 조각가 타마노 세이조씨의 자원봉사로 이뤄졌다. 완성된 추도비의 운반과 설치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재일동포가 수행했고, 추

도비의 제작과정에서 나카가와 도모코 당시 다카라즈카 시장의 참여를 섭외한 것도 <추도비 건립회>의 회장 콘도 도미오씨였다. 이처럼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주도로 이뤄졌다.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이 이루어진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추도비 순난자들의 한국 내 연고를 의뢰한 것도 콘도 도미오씨 등의 <추도비 건립회>의 회원들이었고, 그 조사를 수행한 것도 필자를 비롯한 한국 내 연구자와 예술가, 시민활동가들이었다. 강릉시청에 감사패 청원을 낸 것도 시민활동가들이었고, 강릉시청이 적극 나서자 이들의 결정과 집행을 다카라즈카의 활동가들에게 연계시킨 것도 민간부문이었다.

민간부문의 노력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긍정적으로 호응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인권과 인간애에 바탕을 둔 대의명분이 비교적 뚜렷한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추도비 건립과 감사패 증정을 중단시킬 정치적, 외교적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력이 모두 쉬웠던 것이 아님도 지적되어야 한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 추도비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추도비 건립을 처음 언급했던 정홍영씨가 2000년에 타계한 이후,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콘도 도미오씨는 순난자 제사를 계속하면서 이들에 대한 홍보를 계속했지만, 순난자들의 추도비를 세우는 데에까지 역량을 모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5년 <추도비건립회>를 구성하고도 추도비 건립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모집하는 데에 5년의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은 이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었는지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특히 진보적 지식인 계열의 일본인들과 총련계 재일동포들이 다수 참여했던 <추도비 건립회>의 활동에 민단계 재일동포들이 동참하게 되기까지 많은 홍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다.

강릉에서도 감사패 증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은 시민단체들이었다. 김성수기념사업회와 허난설헌허균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하는 강릉의 활동가들이 김병순씨 연고 조사와 감사패 청원에 적극 나서주었다. 그중에서도 경주 김씨 수은공파 종친회의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Ⅶ. 남북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다카라즈카시의 추도비 건립과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으로 두 도시의 교류는 시작과 함께 1백년의 역사를 가지게 됐다. 김병순씨의 일본 노동이민과 고베 수도공사 참여 과정이 아직 속속들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1914년 그의 희생이 다카라즈카 시민들의 제사로 이어지고, 드디어 양 도시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인정하고 서로 감사를 표시하게 되었다.

김병순씨가 사고사를 당한 것과 다카라즈카 시민들이 그를 제사하고 추도비 건립을 추진한 것은 모두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민간 사안에 지방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다카라즈카가 먼저였다. 2020년 추도비 건립 당시 다카라즈카 시장 나카가와 도모코(中川智子)씨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나카가와 시장은 자신이 쓴 ‘애도할 도(悼)’ 자를 기증해 추도비의 후면에 새겨지도록 했고, 글씨를 쓴 사람이 “다카라즈카 시장”임을 밝혔다. 애도의 주체가 나카가와 도모코 개인이 아니라, 시 정부의 수장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로써 이 추도비는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사적인 추도비가 아니라 다카라즈카 시 정부가 김병순씨를 비롯한 5인의 희생을 애도하고 일본 근대화를 위해 치른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한다는 공적인 의미가 추가됐다.

나카가와 시장의 추도사가 명시적으로 추도비에 포함됨으로써 그로부터 2년 뒤 강릉시가 감사패 증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해졌음은 물론이다. 이제 강릉과 다카라즈카의 양 지방 정부가 조선인 추도비를 둘러싼 1백 년의 역사를 인정하고 서로 감사하는 우호적인 공적 관계가 태동할 토대를 만들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중앙 정부들도 조선인 추도비와 감사패 증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 식민지 시대의 과거사는 양국 사이에 말끔히 해결되거나 봉합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전시 강제동원의 문제는 양국 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깨뜨렸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제재를 단행하자 한국민들은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정부는 다카라즈카 시정부가 조선인 추도비

건립을 후원하는 일에 제동을 걸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는 김병순씨를 비롯한 5인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발생한 것이 1910년대 중반과 1920년대 말로 양국 중앙정부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강제 동원 문제보다 이른 시기의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첩예한 대립으로 이끌려갈 소지가 적었다는 말이다.

특히 강릉 시청이 감사패 증정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산하 고베총영사관에 청원 내용의 확인을 의뢰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고베총영사관은 그 업무를 도쿄 소재 강원도 대표부에 일임했지만, 만일 외교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베총영사관은 이 사안의 추진을 지방정부 기관인 강원도 대표부에 일임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준 셈이다. 이로써 도쿄 소재 강원도 대표부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간섭이나 제재 없이 강릉 시청을 대신하여 감사패 전달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의 표면에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또 한 편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와 그 지방정부 역할을 하는 총련이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일이라면 북한 정부도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북한 정부의 입장을 지방정부인 총련이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과 감사패 증정 사안에 대해 북한 정부와 총련은 가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일본 내에 외교 공관이 없는 북한 정부는 이 사안을 몰랐기가 쉽다. 북한의 지방정부 격인 총련은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사안이 남북이나 북일 관계에 대한 북한의 기본 정책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과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 과정은 남북과 일본의 3국 중앙 정부가 묵인하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정부로서의 총련 역시 뚜렷한 입장 표명이나 가시적인 참여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총련계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주도적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감사패 증정 대상이 된 재일조선인 두 사람이 모두 총련계 인사였던 점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정홍영씨는 1980년대 초까지 총련 다카라즈카 지부장이었고, 김예곤씨는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추도비 건립에 참여한 것이 그들이 가진 정치적 견해나 그들이 속한 단체의 입장 때문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보다는 이국에서 갖은 고생 끝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망향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인도주의적 발로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VII. ‘독백’과 ‘대화’를 넘어서 ‘협력’

코원과 아르세노(2007, 20-49쪽)는 21세기의 공공외교는 독백과 대화를 넘어 협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가 창궐한 약 3년(2020-22년) 동안 한일, 북일 정부 간의 외교는 ‘대화’는 없고 ‘독백’만 계속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남-북 정부 간에도 ‘대화’는 많았지만 그런 대화가 ‘협력’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와 지역 총련, 한국의 강원도와 강릉은 남북일 3국의 세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추도비와 감사패로 대표되는 공공외교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대개는 ‘대화’가 필요했고 실제로 많은 ‘대화’가 이뤄졌지만, 그것이 필수조건은 아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때로는 대화가 없었던 경우에도 ‘협력’은 이뤄질 수 있었다.

공공외교 주체들 사이의 협력은 생각보다 중요해 보인다. 앞 절에서 본 바대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진된 방탄소년단(BTS)의 유엔 연설과 공연은 대한민국과 그 예술가들이 세계 평화와 소수자 인권보호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세계에 천명하는 외교적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민간 외교를 펼쳤던 안용복은 역사에 남을 성과를 거두고도 그 자신은 사형선고를 받고, 유배를 가야 했다. 만일

조선 정부가 안용복의 활약을 추인하고 지지했다면 독도와 울릉도를 지켜내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왜구의 피해를 근절하고, 일찍이 한일 교역을 증대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금번 추도비-감사패 외교도 마찬가지다. 양 도시의 시 정부가 추도비를 건립하고 그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한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일이지만, 양국 중앙정부가 이러한 우호적 교류와 협력을 추인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폭되고 오래 지속될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간단히 제시한 세 공공외교 사례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때 공공외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은 지방정부의 이해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면서 외교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각급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동성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정보와 자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4〉 2022년 3월 26일 다카라즈카에서 열린 감사패 증정식



국가의 정부 외교가 국익을, 지방정부의 도시 외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공공외교는 그 목적이 인권 신장과 소수자 보호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 외교가 세계 도처의 갖가지 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과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 외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이익과 발전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의 관심은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VIII. 결론과 전망: 더 잦은 교류와 더 많은 협력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와 〈강릉시의 감사패〉가 열어준 미래는 상당히 밝다. 우선 감사패를 받은 다카라즈카의 시민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강릉 답방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나는 강릉시와 시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같은 새로운 만남은 향후 강릉과 다카라즈카, 강원도와 효고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도적 교류와 협력은 이내 물산과 문화의 교류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추도비-감사패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효고현 지역의 조선학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를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재일동포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땅에서 고생했던 선조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준 일본 시민사회에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참배의 행렬이 많아지고 잦아질수록 한일 양국과 시민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 사회에서도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시의 감사패 증정은 불편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일본 시민사회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은혜와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는 일본인들에게도 좋

은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인지 한일 시민들 사이에 증진된 상호이해의 징표가 나타났다. 김병순씨 등 3인의 조선인 순난자들을 1백년 이상 제사해 온 〈만푸쿠지〉에서 경내에 추모탑을 만들고 이를 〈삼계만령공양탑(三界萬靈供養塔)〉이라 명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또 〈만푸쿠지〉는 향후 타마세 부녀회, 효고현의 인권 및 사회단체, 그리고 재일조선인 공동체와 협력하여 〈삼계만령공양탑〉 주변을 무궁화와 진달래의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해 왔다. 무궁화와 진달래라고 했다. 이들도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건립과 〈강릉의 감사패〉 증정은 둘 다 그 전례가 없던 일이다. 비록 양국에서 인구 20만의 소도시들끼리 작은 규모로 이뤄낸 일이지는 하지만,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성공한 공공외교의 실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되면서, 남북일 3국 사이에 전에 생각 못했던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원하는 바다.

조정희는 사회학 박사로서 독립연구자다. 무용가 최승희의 삶과 춤을 연구하기 전 세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최승희 선생의 평전을 저술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전역의 조선 무용가들을 한 데 모아 민족무용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릉시. 2022(1995). 강릉시 포상조례(1995년 1월 19일 제정, 2022년 4월 6일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94625> (2022년 6월 25일 확인).
- 강명석. 2019. “제6장. BTS와 도깨비로 공공외교 할 수 있을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래서 공공외교가 뭔가요? (클 출판사), 139-162.
- 김상배. 2019. “제1장. 쉽게 말해서 공공외교가 무엇일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래서 공공외교가 뭔가요? (클 출판사), 7-35.
- 고베신문(神戸新聞). 1929. “다이너마이트 폭발 4명 사상-다카라즈카 터널공사.” 1929년 3월 28일자, 한신판(阪神版), 조간10면.
- 고베유신일보(神戸又新日報). 1929. “다이너마이트 폭발 4명 현장 사상-뇌관건조.” 1929년 3월 28일자, 2면.
- 권 정. 2011. “숙종실록 기록으로 본 안용복-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 『일본 언어문화』 제19집, 417-434.
- 김양수. 1997. “안용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915>, 2022년 6월 20일 확인).
- 김하정. 2022. “한일(韓日)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휴머니즘.” 강릉플러스, 2022년 3월호, 6-9.
- 김현민. 2019a. “안용복1: 울릉도, 독도 지킨 무지렁이.” 아틀라스뉴스(2019년 7월 13일 발행.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 2022년 6월 22일 확인).
- 김현민. 2019b. “안용복2: 너희가 감히 독도를 넘보느냐.” 아틀라스뉴스(2019년 7월 14일 발행.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 2022년 6월 22일 확인).
- 김형수. 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제18호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 41-53.
- 김형수. 2020.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추진실태 및 지원방안.” 2020년 10월 22일 개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활성화 포럼 발표문.

- 김화정. 2020. “똑똑 공공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처음만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아카데미 총서2권. 6-49.
- 박병섭. 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독도연구』 제7집, 1-91.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공공외교법(법률 제13951)” 전문 (2016년 2월 3일 제정, 8월 4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836&viewCls=lsRvsDocInfoR#> (2022년 6월 20일 확인).
-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29a. “다이너마이트 폭발참사-2명 사망 2명 중상.” 1929년 3월 28일자, 도쿄판(東京版), 조간11면.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29b. “다이너마이트 폭발참사-4명 사상.” 1929년 3월 28일자, 오사카판(大阪版), 조간4면.
- 애런 타버. 2019. “미국은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래서 공공외교가 뭐가요?』 클 출판사, 64-83.
- 외교부. 2020. 『공공외교 안내서』. 1-14.
- 요시나가 마사요시(信長正義). 1989. “サラムサラム(2) 鄭鴻永氏(사람사람2 정홍영씨).” むくげの会(무궁화회), むくげ通信(무궁계통신). 1989년 7월 30일 발행, 통권115호, 21-22.
- 정계향. 2019. “다카라즈카(寶塚)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정착운동.” 울산대학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홍영(鄭鴻永). 1997. 歌劇の街のもうひとつの歴史:寶塚朝鮮人(가극의 거리의 또 다른 역사: 다카라즈카와 조선인,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 고베학생청년센터).
-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2019.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동북아역사재단.
- 코윈과 아르세노(Geoffrey Cowan and Amelia Arsenault). 2007. “독백에서 대화로, 대화에서 협동으로: 공공외교의 세 층위.” 한국국제교류재단. 『새 시대의 공공외교』. 공공외교 번역총서 시리즈 3, 20-49.
- 코윈과 컬(Geoffrey Cowan and Nicholas J. Cull). 2007. “변화하는 세계 속의 공공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 『새 시대의 공공외교』. 공공외교 번역총서 시리즈 3, 14-18.
- 콘도 도미오(近藤富男). 2020. “鄭鴻永さんとのこと(정홍영씨와의 일).” むくげ

の会(무궁화회), むくげ通信(무कु게통신). 2020년 5월 31일 발행, 통권300호, 9쪽.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2000. “鄭鴻永さんの死を悼む(정홍영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むくげの会(무궁화회), むくげ通信(무कु게통신). 2000년 1월 30일 발행, 통권178호, 25쪽.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2022. “近藤富男さんが亡くなりました(콘도 도미오씨가 돌아가셨습니다).” むくげの会(무궁화회), むくげ通信(무कु게통신). 2022년 3월 27일 발행, 통권311호, 6-7쪽.

Abstract

Stories of Two Cities: Gangneung and Takarazuka Case Analysis of Public Diplomacy on 〈Takarazuka Memorial Monument for Koreans〉 and 〈Plaque of Appreciation of Gangneung City〉

Cho, Junghee*

On March 26, 2020, a memorial monument for Koreans was built in Takarazuka, Hyogo Prefecture, Japan. The memorial stone engraved the names of five Korean workers, including Kim Byung-soon, who died in an accident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be water supply in March 1914. The Japanese and Korean residents of Takarazuka have been holding annual memorial services for the Korean victims for the past 100 years, discovering and recording their sacrifices, and eventually established a memorial stone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Takarazuka municipal government. This article identified a series of processes where the construction of <Takarazuka Memorial Monument for Koreans> has been led to the presentation of <Plaque of Appreciation of Gangneung City>. Considering these activities as a typical example of Korean-style public diplomacy,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pursue universal values based on humanity and human rights in public diplomacy and th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actors of public diplomacy.

* Independent Researcher, jc7202@gmail.com

Key Words: Memorial Monument, Public Diplomacy, Cooperation,
Gangneung, Takarazuka

논문투고일: 2022. 7. 21.

논문심사일: 2022. 7. 29.

게재확정일: 2022. 8. 15.